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헌금 전 이야기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본 헌금 전 이야기는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 일과표(Year B)의 본문인 에베소서 2:1-10 과 요한복음 3:14-21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주일을 연합감리교구호주일로 지키는 경우 상황에 맞게 바꾸어 활용하세요. 본 헌금 전 이야기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 되었다”라는 제목의 예배자료, 설교자료, 어린이 설교/주보와 함께 사용하세요.

오 늘은 연합감리교구호주일입니다. 이 는 교단 내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지원하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헌금주일 중 하나입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는 위기를 맞은 지역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구호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구호위원회와 세계선교부는 보건 전문가, 선교사, 재난 지원 전문가,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사랑 안에 자택 대기 (Sheltering in Love)”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통해 코비드-19 위기에 세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부터 펜실베니아, 또 브라질에서

부터 브룬디에 이르기까지, 구호위원회는 건강보험, 음식, 위생 혹은 고용 안정 등의 인간이 가진 매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교회, 연회, 및 비영리 단체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사업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구호위원회는 단지 단기적 긴급 상황에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역 내 단체 및 교회와 연합감리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일 하면서 피해를 당한 지역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재난 후 수년 동안 그들의 재건 과정을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헌금 전 이야기

돕습니다.

구호위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연합감리교구호주일에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선교헌금 덕택입니다. 각 연회의 재난 대응 담당자 및 초기 대응팀을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사무실의 전기세 등의 운영비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특별선교헌금은 그들이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호위원회의 80년 역사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에베소서 2:10)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전쟁, 시민 소요 사태, 폭풍, 산불, 기근 또는 홍수의 영향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응하며, 재난에 압도된 채 그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개인, 가정, 지역 사회를 돕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도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